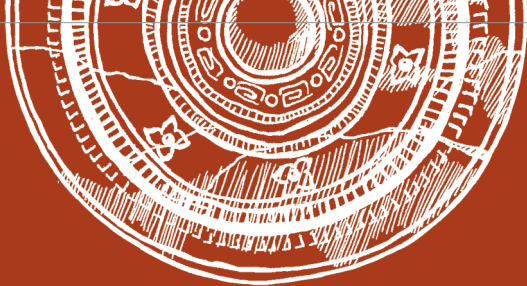




2022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만화로 이해하는



# 전북 가야



# 백두대간 속 봉수왕국 전북가야

그림 이하민

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의 존재를 알린 첫 번째  
유물은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발견된 가야토기였습니다.  
이후 1982년 남원 월산리  
가야고분에서 다양한 가야 유물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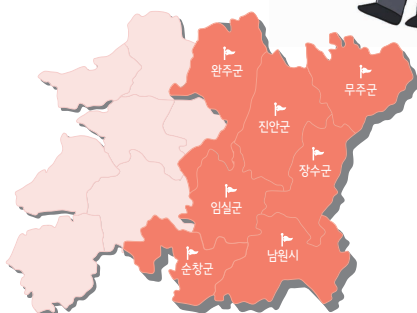
전북가야 선포식 고유제



## ▶ 전북가야

전북의 동부지역은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되었죠.  
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이곳이 4세기말 ~  
6세기초 가야 문화권이었고,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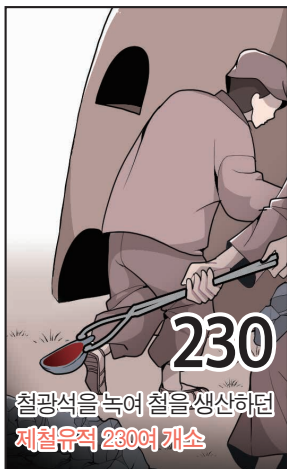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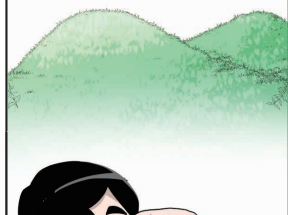
이들 동부지역 가야를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조사 등으로 밝혀진 전북가야의 유적은...

# 420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고총 420여 기



230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30여 개소



연기와 햇불로 신호를  
주곤 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입니다.  
100



전북가야는 한마디로 '첨단과학'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가야는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 되는 가야의 소국들 중  
유일한 '봉수왕국'이자 진정한 '철의 제국'입니다.

전북가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 호·영남 사람들이  
오갔던 백두대간 치재  
(남원과 장수 경계  
봉화산)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2018년에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지방  
최초로 국가 사적 제 5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제32호분 정비 복원 후



'만화로 보는 전북가야'를 통해  
전북가야의 존재를 알고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두대간 속 봉수왕국 운봉가야

그림\_이하민

글\_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첫 번째 이야기는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자리하고 있는  
'운봉가야'입니다.  
운봉가야는 1982년 88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굴돼 처음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발굴한  
남원 월산리 고분군 현장  
사진이야

응. 1982년에 1차 조사를  
하고, 28년 만에  
2차 조사를 한 거야.

이때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

맞아.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가 모습을 드러냈어.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 중  
하나야. 가야 고층에서 최초로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와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등도 발굴됐지.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도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과  
금동신발이 출토됐어.

철제초두

계수호

투구, 목가라개, 비늘갑옷

수대경 \*

\* 계수호: 닭머리가 있는 병 \* 수대경: 짐승들의 문양이 있는 청동 거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특히 이곳은 호남 지역 가야 유적 중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운봉고원 내 가야고총에서 여러 철가야유물이 나왔는데, 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가 달린 긴 칼인 환두대도는 삼국시대 상감 공예품 중 최고의 백미야. 운봉가야 철의 장인집단이 만든 하이테크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

고총에서 발굴된 꺾쇠는 가야 출토품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이야.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가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운봉가야는 대규모 철 산지이자 교통의 중심이었던 운봉고원에 기반을 둔 가야 소국이었어.



백제 무령왕 때 편입돼 521년 이후 문헌에 등장하지 않지만, 고총 규모나 발굴된 유물을 봤을 때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항공 사진

# 백두대간 속 봉수왕국 장수가야

그림\_이하민

글\_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두 번째 이야기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자리하고 있는  
'장수가야'입니다.  
장수가야는 1993년 장수군 삼장 마을의  
한 할아버지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삼봉리 2호분 발굴 후



삼봉리 3호분 발굴 후

할아버지의 제보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 제128호·동촌리 고분군  
제132호가 발굴됐지.  
이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2019년 장수  
동촌리로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52호로 승격됐어.

지금 것 백제문화권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나온 것은 장수군이 처음이었어.

맞아. 영남지방에서도  
단일 지역 내에 고총이  
밀집된 곳은 많지 않을  
정도니까 이례적이지.

특히 삼봉리·동촌리 고총은  
봉분 가장자리에 돌레석을 두르지  
않았는데, 가야 문화권에서는  
유일한 형태야.

벌써 장수에서만  
확인된 중대형  
고총이 240여 기야.



동촌리 가야 고총 에서 단경호·  
고배형 기대·발·뚜껑 등의  
토기류와 말발굽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어.  
말발굽의 경우 가야 고총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돼 장수가야가  
우수한 철의 주조기술을 가진  
가야 소국이었음이 입증되었지.



토기와  
철제 말발굽



대적골제철유적 제련로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와 가야의  
교섭창구인 월성치·육십령을 장악하고 진안고원에 그물망처럼 잘  
갖춰진 내륙교통망을 직접 관할했기 때문이야. 또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제철기술과 100여 개의 봉수 등에서 성장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삼봉리 산성 남쪽 성벽

기존의 가야 영역에서는 찾기 힘든  
많은 양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었고,  
지금의 최첨단 제조업과 통신산업인  
철과 봉수가 존재했던 장수가야.  
역사에 머문 시간은 약 150년  
내외이지만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니, 장수가야의 비밀에  
많은 관심 부탁해.



# 전북가야의 첨단산업단지 진안군

그림 이하민

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세 번째는 전북가야의  
첨단산업단지였던 진안군 이야기입니다.  
1996년 용담댐 수몰 지구에 대한 군산대학교  
발굴단의 조사가 진행돼 진안 가야문화가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됐죠.



1,500년 전 가야와 백제, 신라 등이 진안고원에 국력을 쏟았던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국력의 원천으로 알려진 구리와 철이 진안에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했던 제동유적이 처음 발견된 곳이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거든.

‘동향면’은 옛날부터 구리고을이라고 불렀대. 초기 철기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쪽 구리를 생산했었지.

동향면 대량리 유적 전경

진안의 가야문화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산은 바로 봉수야.

봉화산 봉수를 중심으로 10여 개소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어. 전북가야의 100여 개소 봉수 중 주천면 태평봉수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돼 복원됐지.

진안군이 선사시대부터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였다는 것과 동광석,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전북가야의 첨단산업단지였던 진안군의 가야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어.

진안 황산리 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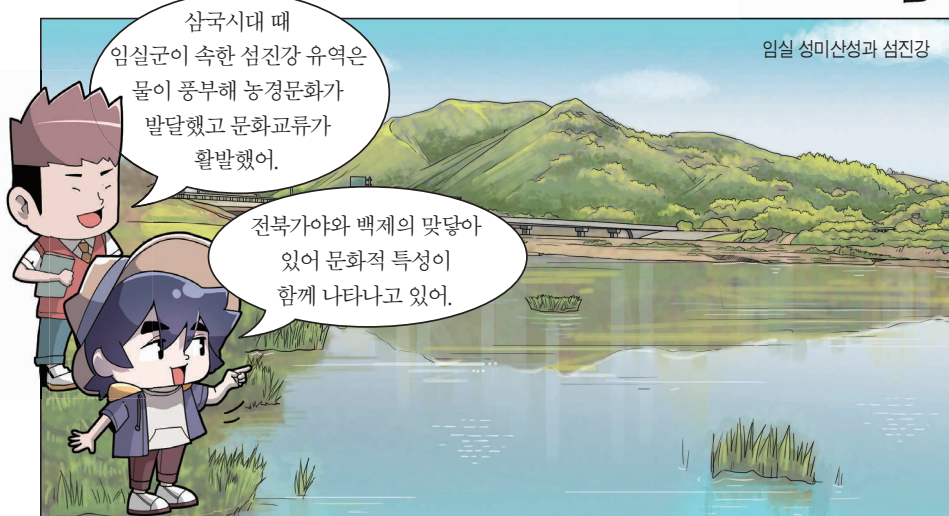


# 전북가야 교역망의 허브 임실군

그림 신서진

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네 번째는  
전북가야 교역망의 중심이었던  
임실군 이야기입니다.  
임실은 삼국시대 내륙 교통망의 중심으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공존했으며,  
여러 나라의 문화적 교차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두리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발굴 후



왼쪽 : 석두리 출토 굽다리 접시  
오른쪽 : 금성리 출토 삽포  
(물고기를 뜨는 농기구)



금성리 출토 된 토기들

맞아. 1972년에 임실읍 금성리에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섞인 상태로 나왔어.



청웅면 석두리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에서도 두  
나라의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됐지.



섬진강 유역 심장부에 위치한 월평리 산성은 줄곧 내륙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해왔어.

월평리 산성 남쪽 성벽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 기와, 자기조각 등이 나와서 천 년 이상 산성이 운영됐음을 알 수 있지.

섬진강 유역은 전북 동부지역의 내륙교통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기도 해.

치재지역과 운봉고원을 지나 경상도로 향하는 길과 호남정맥 가는정이를 넘어 동진강 하구 가야포까지 이어진 길의 분기점이지.



가야포는 조선 철종 8년에 제작된 『동여도』에 등장하는데 지금의 부안 계화면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아마 이 길을 따라 운봉가야와 장수가야가 철을 만들 때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굴과 조개껍데기를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호남정맥 솔치와 섬진강, 임실 성미산성

월평리 산성을 중심으로 교역망을 잘 갖춰 전북가야 교류의 중심이었던 임실. 당시 오고 갔던 유물들이 더 많이 출토되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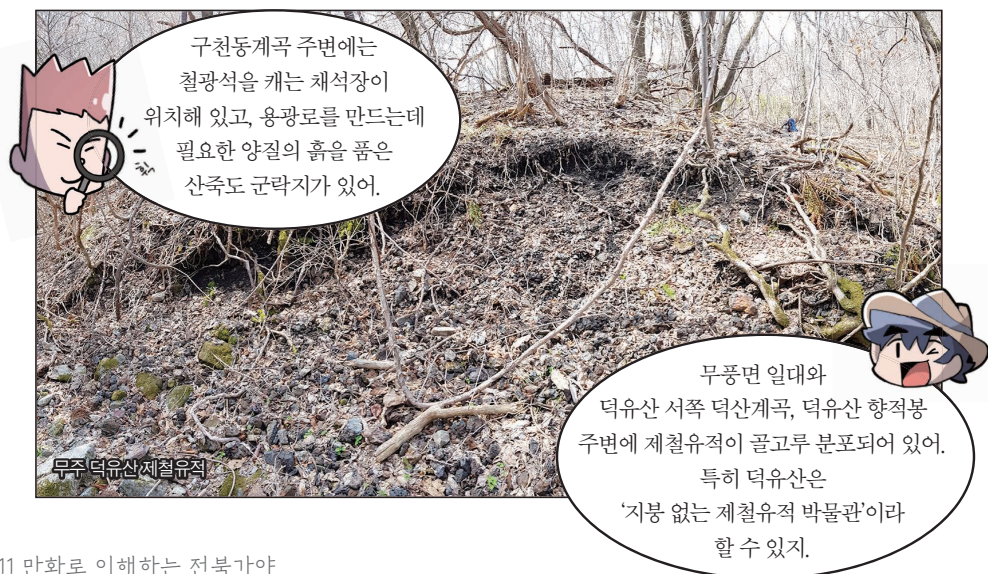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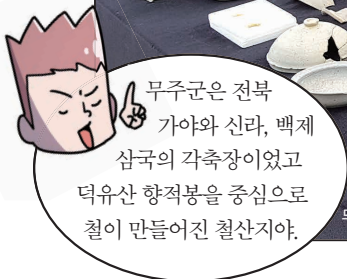
# 전북가야와 신라의 각축장 무주군

그림 신서진

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다섯 번째는 전북가야와 신라의  
각축장이었던 무주군 이야기입니다.  
무주는 가야와 백제, 신라 삼국의  
최대 격전지로, 50여 개소의 제철  
(철을 만드는)유적이 발견돼  
대규모 제철단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 출토유물



# 전북가야와 백제의 국경 완주군

그림 이하민

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여섯 번째는  
전북가야와 백제의  
국경이었던 완주군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산성과 봉수, 제철(철을 만드는)  
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돼 국경지대였  
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전북가야가 완주군  
동북부로 진출해 백제와 국경을  
이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백제

가야  
(완주군)



1,500년 동안  
봉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석축 내부를  
흙이 아닌 돌로 채웠기  
때문이야.

화산면 각지봉 봉수연대서벽

\* 관방유적: 국경의 방비를 위해 설치한 군사시설 \* 통신유적: 햇불과 연기로 소식을 전달한 봉수





\* 판상철부 : 판 모양의 얇은 쇠로 만든 도끼 \* 단야도구 : 금속을 불에 달구어 버리는 데 쓰이는 도구

# 전북가야 서쪽 경계 순창군

그림 신서진

글\_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일곱 번째는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였던 순창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가야계 문화유적이  
섬진강 동쪽 동계면에서만 확인됐고 순창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순창이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분군 석곽묘 발굴 후

2013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발굴조사에서  
널무덤, 독무덤, 돌방무덤이  
각각 한 곳씩, 돌덧널무덤이  
23곳 조사됐어



모두 삼국시대  
무덤들로 섬진강 동쪽  
평탄한 들판에 입지를 뒀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지.



조사된 수십 곳의  
무덤 중 한 곳이  
가야 고분이었어.



그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대부분인데  
금동제 귀걸이, 가락바퀴도  
나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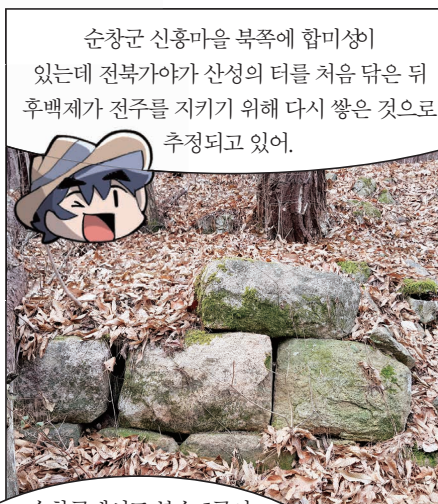


구미리 고분군  
출토유물(위, 아래)

19호분에서는 가야토기편이  
일부 섞여 있었는데 섬진강  
유역으로 전북가야가 진출  
했던 걸 보여주고 있어.  
존속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순창 오고리 산성과 섬진강





# 나의 전북가야

## 문명 답사기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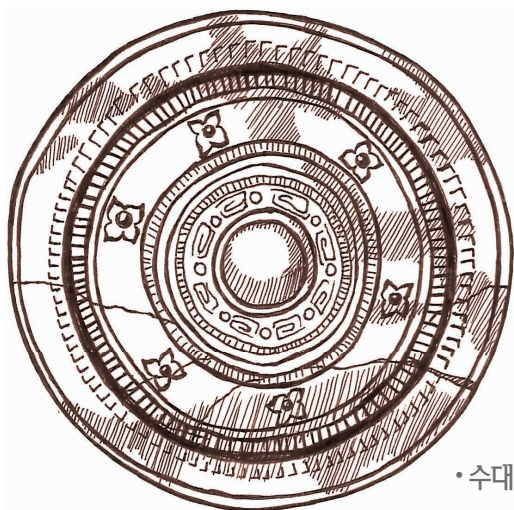


# 전북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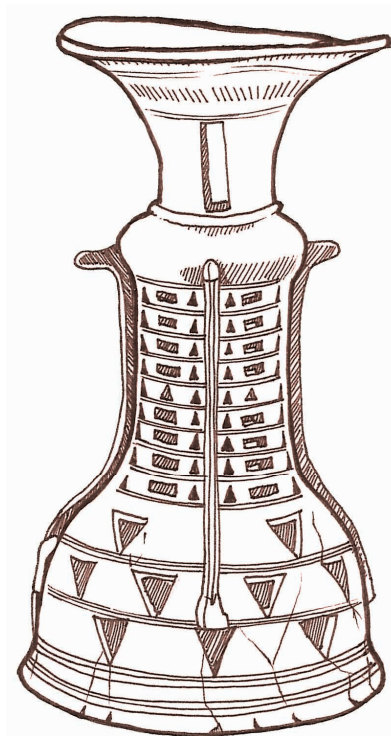
## 유물 색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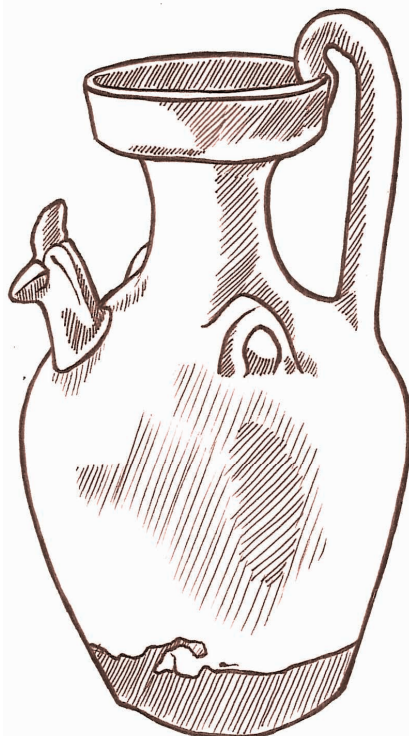
• 갑주 \_ 투구, 목가리개, 비늘갑옷



• 수대경 \_ 청동거울



• 원통 모양 그릇 받침



• 계수호 \_ 닭머리 모양 청자



만화로 이해하는

# 전북 가야



제작처 : 전라북도

제작일 : 2019. 12.

글·그림 : 전라북도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제공